

Drama Festivals as a Way of Survival : Focusing on the Theater Festivals in Busan

Bak, So-young

Lecturer,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vishna@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ole of theater festivals in regional arts through the case of the Busan Theater Festival. By focusing on Busan—home to the largest number of theater companies and theater festivals outside of Seoul—this research analyzes the role that festivals play in shaping the ecosystem of performing arts in the region.

Methods This study compares several theater festivals held in Busan to examine their respective roles in the local performing arts scene. Focusing on the Busan Theater Festival and the Busan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two of the most prominent—it explores their contributions to the revitalization of local theater companies. It also considers the evolving role of the Busan Theater Festival as it transitions in 2024 toward becoming a citizen-participatory performing arts festival.

Conclusions Although Busan hosts numerous theater festivals, the survival of theatrical arts remains challenging, and even maintaining the festivals themselves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Notably, the Busan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despite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tends to focus on inviting theater companies from other countries and from Seoul, rather than fostering participation from local troupes. In this context, the bold transformation of the Busan Theater Festival—which had been reduced to a preliminary round for the National Theater Festival—can be seen as both a strategy for the festival’s survival and a meaningful effort to revitalize local theater.

Keywords Busan Theater Festival, Local Theater Festival, Arts Festival, Local Festival, Regional Theater, Busan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Theater in Busan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5.10.312.002

Received: Sep. 20. 2025 ; Reviewed: Oct. 10. 2025 ; Accepted: Oct. 20. 2025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생존방식으로서의 연극제: 부산의 연극제들을 중심으로

박소영

목 차

1. 지역축제로서의 연극제, 예술축제로서의 연극제
2. 부산의 연극제 현황
3. 지방연극의 생존을 위한 재구성 - 부산연극제의 변화
4. 결론

1. 지역축제로서의 연극제, 예술축제로서의 연극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축제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왔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드러내는 지역축제는 지역 주민에게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 제고를, 외지인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일종의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로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¹

문화관광부는 지역축제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산물 축제, 전통 민속축제, 역사 축제, 예술축제가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예술축제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문화회관 건립의 유행과 함께 활성화되었다. 문화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 여가생활에 대한 일반인의 욕구가 결합하며 만들어진 결과였다.² 1995년부터 2005

1 류정아 외(2006). 한국지역축제 조사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요약본.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4.

2 도정남·백진기(2020). 포항 바다 국제 연극제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극예술연구, 19. 134.

년까지 지역예술축제가 집중적인 양적 성장을 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예술축제가 명맥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으며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여주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축제가 그러하듯 “독창적 프로그램 구성 미비, 예술축제로서 지향점에 대한 철학적 기초의 불안정성, 지원 주체의 과도한 간섭, 지속적인 축제 전문 인력 유지의 어려움, 조직구성의 불안정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

그런 상황에서도 예술축제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지방자치행정의 정치·행정적 필요에만 있지는 않다. 공연예술축제는 당대의 이슈를 반영하며 예술적 형식을 문화예술 창작의 흐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⁴ 공연예술 작품을 소개하고 예술을 창조하도록 하며 동시에 지역예술을 활성화하고 예술가의 육성과 예술의 보급하는 계기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⁵ 지방행정이 아닌 예술가들이 주체가 되어 자체적으로 만들고 진행하는 예술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우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된 환경 탓에 지역의 공연예술이 자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많은 예술인은 다양한 이유로 지방에 머무르기를 포기하고 서울로 향하거나 혹은 예술 자체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예술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예술인으로서 살아가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예술인이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하고 좋은 작품을 생산해서 지역 예술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예술문화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문화에 생태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역공연예술제이다.

지역공연예술제는 지역예술인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며 동시에 제작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연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완성된 공연예술은 한데 모여 축제의 형태로 공연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며 자신의 예술을 보여주고, 자신들을 홍보하는 기회를 얻는다. 그뿐만 아니라 동료 예술인들을 만나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지역공연예술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체험(소비)의 실현과 함께 지역 예술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3 박상순(2016). 공연예술축제의 유형연구. 연극교육연구, 29, 6-7.

4 배준용(2018). 공연예술축제 사례분석을 통한 무용축제의 새로운 유형 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

5 윤성진(2009). 국내 공연예술축제의 부대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5.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시 중에서 많은 지역공연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는 도시는 부산일 것이다. 부산은 많은 지역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예술제를 통해 부산 시민들에게 지역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예술제는 아니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며, 공연예술축제로서는 1963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부산예술제를 비롯해 부산연극제와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부산무용제와 부산국제무용제, 부산미술제 등이 있다. 이렇듯 부산은 각 공연예술장르마다 국제예술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역동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인 것같아 보인다.

이 중에서 연극제는 공연예술축제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연극인들의 활발한 참여, 그리고 지역 관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서 주목해 볼만하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의 연극제들이 풍족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많은 연극제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연극제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버텨오던 연극제들도 코로나19를 지나오며 결국 종료되었다. 게다가 극단의 참여도와 관객의 관심도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며 부산의 연극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현재까지 지역연극제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극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⁶ 부산의 지역연극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려는 비평은 있으나⁷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고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국제공연예술제가 아닌 지역 중심의 지역공연예술제로서 부산의 연극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확인하고, 특히 부산연극제의 변화와 노력의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극단과 극장, 연극인이 있는 부산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연극제는 관객들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에 다른 지역의 예술제에도 참조할 부분을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는 한계를 통해 연극제의 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발견해 낼 기회가 되고자 한다.

6 김성희(2008). 전국연극제의 역사와 방향 모색. *드라마연구*, 28; 도정남·백진기(2020). 포항바다국제연극제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기예술연구*, 19-3; 이한석(2011). 문화도시마케팅으로서 지역문화예술축제의 가치와 발전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국제연극제를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9-4; 정지은(2016). 지역예술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관광연구*, 31-7.

7 김병철(2025). 세계와 지역이 만나는 연극의 향기: 부산국제연극제. *한국연극*, 7; 김남석(2015). 이슈: 연극축제 공공성의 한계와 대안 부산연극제. *연극평론*, 78; 김문홍(2021). 재미와 성찰, 그 둘의 조화: 제39회 부산연극제. *오늘의 문예비평*, 122.

2. 부산의 연극제 현황

부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연극제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연극제(예술제)는 시작 연도를 기준으로 나열하였으며, 9번까지는 전문 극단이 참여하거나 진행하는 연극제이고, 10번과 11번은 아마추어 극단의 연극제이며 12번 이후의 연극제는 한때 실시했으나 2024년 현재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연극제이다. 특히 중단된 연극제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상황을 버텨내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폭 축소된 연극제 또한 있는데, 부산 청소년연극제가 그것이다. 이 연극제는 전국청소년연극제에 출전할 부산 대표 청소년 연극팀을 선정하기 위한 경연대회성격을 띠고 있다. 부산청소년연극제는 코로나19 직전 해였던 2018년 참가학교가 9학교, 2017년 8학교, 2016년 13학교가 지원할 정도로 연극부가 있는 부산의 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행사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19년도에 8개 학교, 2020년에는 5학교, 21년에는 3학교로 추정되며⁸ 심지어 2023년에는 부산정보고등학교만 참여했다. 심사를 맡은 부산연극협회 측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참가학교 수의 감소는 코로나19 이후 고등학교의 연극부가 많이 해체되어 참여할 연극부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결과였다.⁹

〈표 1〉 부산의 연극제 목록

순번	연극제 이름	시작연도	회차	주최	비고
1	부산예술제	1963	62회	부산광역시, (사)부산예술문화총연합회	무대예술 중심에서 확장
2	부산연극제	1983	42회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전국 연극제 예선
3	부산청소년연극제	1987	38회	부산광역시 교육청,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예선 현재 참가학교 1편
4	부산국제연극제	2004	21회	부산시,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주관)	
5	광대연극제	2004	20회	광대연극제 운영위원회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진행
6	부산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	2013	11회 (2023)	부산소극장연극협회의회	

8 <2019 부산청소년연극제 심사 총평> ; <2020 부산청소년연극제 심사 결과> ; <2021 부산청소년연극제 심사 결과>, 부산연극협회 홈페이지(<http://www.bstheater.or.kr/> 이하 홈페이지 주소 생략).

9 부산연극협회 협회장·사무처장 인터뷰, 날짜: 2024년 10월 10일, 시간: 오후 2시 30분~4시, 장소: 부산예술회관 부산연극협회 사무실.

7	부산국제공연 예술제	2016	9회	금정문화재단	부산대학교 거리페스티벌 →부산예술축제→부산국 제공연예술제
8	작강연극제	2018	7회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예술제 내에서 진행 24, 23는 예술마켓에서
9	부산국제공연 예술마켓	2023	2회	부산문화재단	
10	부산시민연극제	2016	9회	부산연극생활문화협회	아마추어극단의 연극제 (무료)
11	감동진 연극제	2020	4회	북구연극공동체, 북구문화예술회 관, 극단해풍	아마추어 연극제 (무료) 2024 알 수 없음
12-1	수수한연극전	2001(추정)~2022		부산광역시, (사)부산예술문화단 체총연합회	2~3인 연극제 부산예술제 안에서 공연되 다가 중단
12-2	부산 창작 1인극 페스티벌	2011			1회만 진행한 것으로 추정
12-3	부산 창작 단막극제	2011~2021			
12-4	하나다 페스티벌	2015~2021		나다 소극장	나다 소극장 페스티벌에서 시작
12-5	신진예술페스티벌	2019~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연극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1963년 부산무대예술제로 시작하였던 부산예술제는 부산의 예술협회가 모두 참여하는 가장 크고 오래된 행사인데, 1963년 부산이 경상남도 관할에서 직할시로 승격된 기념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¹⁰ 부산의 연극인들은 제1회 부산예술제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는 수수한 연극전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예술제에 참여했으나 2022년 참가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해의 기록에 의하면 2022년 수수한 연극전에서는 연극 <노인, 새 되어 날다>¹¹ 한 편만 공연되었다. 공연 극단이 특정 극단이 아닌 부산연극협회의 합동공연이었던 것을 볼 때, 부산의 극단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지면서 수수한 연극전을 중단한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수수한 연극전이 사라지고 난 뒤 2023년부터 부산예술제에 참가하고 있는 연극제는 ‘작

¹⁰ 부산예술제 호화로운 개막. (1963년 3월 23일). 경향신문.

¹¹ 김정환 소설 원작을 극작가 박원돈이 희곡으로 각색한 <울속도>(1986)를 신태범이 <노인, 새 되어 날다>로 각색해 공연한 작품으로 1987년 제5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 남자연기상, 연출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지만) 강(한) 연극제'이다. 작강연극제는 2018년부터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연극제로, 2~3인극을 위주로 하는 작은 연극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였다. 이 연극제 역시 부산연극협회가 주관하고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한 연극전을 대신해 부산예술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23년 5개의 신청 극단 중 4개의 극단이 선정되어 예술제에 참가하며 수수한 연극전과 비교해 보다 적극적으로 부산연극이 부산예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부산시민에게 주목을 받는 연극제는 부산연극제와 부산국제연극제라 할 수 있다. 먼저 부산국제연극제는 부산연극제의 수상작을 초청작으로 공연하기는 하지만, 해외연극과 서울의 연극을 부산에 초청하여 공연하는 것에 가깝다. 부산에서 가장 크고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연극제이지만 개최 공간이 부산일 뿐, 부산 극단의 참여는 적은 수준이다.

〈표 2〉 부산국제연극제에 참가한 부산 극단 목록(2019~2024)

	참가 부산극단	세션	공간 및 비고
2024년	문지방	초청공연	2023년 부산국제연극제 주목할 작품 최우수상 수상작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동구)
	그 외 한국극단 : 후맨스컴퍼니(무용), 블루맨스씨어터2(무용), 초록소, 성북동비둘기, 99아트컴퍼니		
2023년	동녘	개막 축하공연	부산시민회관 소극장(동구)
	문지방	주목할 작품	용천지랄소극장(남구)
그 외 한국극단: 곡두환영, 극적공동체 고도, 까망, 사다리움직임연구소			
2022년	누리에	지역상생 챌린지 힘내라 부산	하늘바람소극장(남구)
	극단 여정		소극장6번출구(수영구)
	극단 잠방	청년지원 챌린지(부산 지역 청년공연예술단)	공간소극장(남구)
	동녘		열린아트홀(동래구)
	아이컨택		레몬트리소극장(수영구)
그 외 한국극단: 실험극장, 극단 물결, 극단 터(광주)			
2021년	극단 잠방	청년지원 챌린지(부산 지역 청년공연예술단)	유튜브
	더블스테이지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판플		
그 외 한국극단 : 점프, 경남도립예술단			
2020년	두 매직, 매직큐, 저글맨, 영플레이	청년지원 챌린지(부산 지역 청년공연예술단)	거리 퍼포먼스 단체 (마술, 남사당, 서커스 등)
2019년	그 외 한국극단: 극단 보물(충주), 극단 엘리스		

부산 극단의 공연은 2023년과 2024년에는 부산국제연극제의 축하공연으로서 초청되었고, 2020~2022년까지는 부산 지역 극단 세션에서 따로 진행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공연이 소극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부산국제연극제가 영화의전당(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주요 초청작이 공연되는 데 비해서 부산 극단의 공연은 소극장 위주로, 그것도 영화의전당이 위치한 지역인 센텀시티와 매우 먼 거리의 소극장에 흩어져서 진행되었다. 영화의전당과 그 근처에 위치한 극장인 KNN시어터, 소향시어터에도 소극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극단 공연 세션은 모두 센텀시티 부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소극장이었다.¹²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송출된 것을 제외한다면 부산 극단은 부산국제연극제에 참가하고 있어도 사실 축제 한가운데에 위치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부산에는 서울의 대학로와 같은 극장이 모여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부산은 많은 공연예술을 담당하는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의 주변으로 소극장 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부산의 소극장은 흩어져있어 일반 시민들이 찾아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국제연극제는 영화의 전당을 연극제의 거점으로 삼고, 문화회관과 시민회관, 여러 지역으로 산재된 소극장까지 축제의 공간을 확장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영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센텀시티 지역의 극장에서 공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집중된 지역에서 밀도있게 진행되던 형태에서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면 축제의 공간적 집중력이 저하되고 주변 공간의 공연에 대한 관심도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주변 공간을 부산 극단에게 맡긴다는 사실은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부산연극제는 처음으로 개최되었던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연극제(현재 대한민국연극제)의 지역 예선 대회에 가까웠다. 부산연극제의 개최 목적이 전국연극제(당시 전국지방연극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제1회 부산연극제에서는 4개의 극단이 참가(처용, 레퍼토리시스템, 현장, 전위무대)¹³했었다. 창작극을 조건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부산연극제는 2020년부터 창작 희곡 제한을 푸는 대신 두 번의 예심을 거쳐 2편을 선정해 공연하였으나 신청 극단이 5곳뿐이었고, 2021년에는 3편(신청 극단 5개),

12 2023년 소극장 경연 세션이었던 주목할 작품들은 모두 영화의 전당과 매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극장에서 산발적으로 공연되었다.

13 12개 시도 작품선정 완료...연습 “한창”. (1983년 5월 13일). 조선일보.

22년 5편을 공연하였다. 22년에 선정작을 추가 공모했던 것으로 볼 때 22년에 들어서서는 부산연극제가 공연작을 이전보다 많이 선정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산연극제가 2차 심사를 통해 공연 작품의 수를 줄이는 시도를 감행하였으나, 이는 관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관람할 작품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연극제라는 이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만족시켜 주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산연극제의 목적이 연극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연극제에 출품할 작품을 선정하는 데 있기 때문에 참가 극단에도 부담이 발생했다. 극단 입장에서도 소극장보다 중극장이나 대극장용 작품을 제작해야 했는데, 특히 소극장 위주의 공연을 하는 부산 극단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¹⁴ 물론 부산연극제 측은 참가작으로 선정된 극단에게 2022년 기준 800만 원 이상의 공연제작비, 기본 대관료, 공연 보험료, 통합 홍보물 제작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하였으나 부산연극제에서 출품작으로 선정이 되면 전국연극제에 참가해야 하므로 또다시 공연 제작비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부산연극제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는 부산연극제의 지원 극단의 수가 적은 이유로 작용했다.

그 외 소규모의 연극제로서 작강연극제, 부산 소극장 연극 페스티벌, 광대연극제를 들 수 있다. 작강연극제는 앞서 언급했던 2~3인극의 소극장 연극을 중심으로 하는 연극제이며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역시 소극장 연극제이다. 소극장 연극제의 경우 지역적으로 흩어져있는 소극장들이 모여 진행하는 연극제이다. 다만 문제는 이 연극제가 많은 관심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매년 치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¹⁵ 부산의 소극장을 알리기 위해 연극인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21년 종료된 하나다 페스티벌에서도 드러난 한계였다. 나다소극장에서 부산의 지역 극단을 모아 여러 편의 공연을 하는 작은 연극제였던 하나다 페스티벌 역시 코로나19를 버티지 못하고 연극제를 그만두어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14 부산연극협회 협회장 및 사무처장 인터뷰, 날짜: 2024년 10월 10일, 시간: 오후 2시 30분~4시, 장소: 부산 예술회관 부산연극협회 사무실.

15 [공감] 부산의 소극장과 우리의 문화. (2023년 11월 23일). 부산일보.

3. 지방연극의 생존을 위한 재구성: 부산연극제의 변화

부산에서는 적지 않은 연극제가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산연극의 구심점이 될 만한 연극제가 없다는 점이다. 부산국제연극제에서 부산 극단은 국제연극제 중앙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부산연극제는 전국연극제를 위한 예선대회로 전략한 데다가 참가 극단마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게다가 소극장 연극제는 지역관객들의 관심 밖에 있어 존립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극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 부산연극제가 예선 대회 중심이 아닌 연극제에 방점을 두고 재구성하며 부산연극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모습은 살펴볼 만하다.

부산연극제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각자 생존 중인 부산의 지역 극단이 축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며 공존하는 계기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동시에 부산연극제가 시민들이 연극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하며 공연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급하였듯 부산연극제는 예선 대회의 성격이 강했고 2019년 이후 2심으로 진행하여 공연작 자체를 최소화해 버렸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컸겠지만, 적은 수의 공연은 그만큼 관객의 호응을 얻기도 시민의 관심을 얻기에도 역부족이었으며 연극제라는 이름에 맞는 축제를 운영하기에도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전국연극제 예선은 따로 진행하여 작품을 선정해 부산연극제의 축하공연으로 선정하고, 그 외 다른 극단들의 공연을 대폭 늘렸다. 세션의 이름 역시 부산의 이름을 따서 B(Base(2023), Boom(2024)), U(Unique), S(Social(2023), Scene(2024)), A(All), N(Noise)으로 나누고 이름에 맞게 진행했다. B와 U가 부산의 전문 극단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S, A, N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개인 경연인 S, 동아리 경연인 A와 부대행사인 N은 전문 예술인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혹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전문 강연과 연극 토론을 통해 시민 간의 교류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문연극에서 아마추어 연극까지 연극제의 영역을 확장하며 부산 지역의 연극의 구심점이 되어 부산연극제를 지역대회가 아닌 시민 참여형 공연예술축제로 만들겠다는 주최측의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전문극단 공연의 경우에도 참여 자격을 완화하여서 참가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또한 넓혔다. 이전까지의 부산연극제는 부산연극협회에 가입된 극단만 참가가 가능하였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대한민국연극제 예선 공모팀을 제외하고 부산연극협회 소속이 아닌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혹은 예술가) 모두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그동안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표 3〉 부산연극제 프로그램별 자격 요건과 참여 단체 목록

세션	2023년		2024년	
	자격	참여극단 (단체)	자격	참여극단
B	부산지역공연예술단체 (부산연극협회 소속 여부 무관)	세진, 아이컨택, 우릿, 누리에, 여정, 이야기, 드렁큰씨어터, 스테픈울프, 판플, 아티스트릿, 연, 코코, B급로타리, 아센	부산지역 예술단체 및 대한민국 전 지역 공연예술단체(3년 이상)	우릿, 누리에
U	부산지역 신진예술가(단체), 전공 대학생 및 극예술연구회 경연	잠방, 극예술실험집단 초, 원테이크, 몰레방아, 단추	부산 소재 연극 관련 공연예술 단체(일회성 프로젝트 무관, 부산연극협회소속 무관)	아이컨택, 따뜻한 사람, 예술집단 백미, 극예술집단 초, 데일리드라마, 빅피쳐스테이지, 동녘
S	자격 무관, 온라인 공간에서 펼쳐는 작품 경연 (전국공모)	온라인 독백 경연 대회 세션	자격무관	명장면 다시보기 장면의 재구성
A	연령 무관, 시민예술단체 및 동아리 경연	국악연주단체 프락, 해운대 글로리아 어린이합창단, 콩깍지 연극단(실버벨노인복지관), 극단 별밭, 교육극단 북극토끼, 이주여성극단 다락방, 창작집단 우분투, 명지미녀예술단, 부산정보고등학교 연극부 영우	연령 무관, 시민예술단체 및 동아리 경연	극단 하이파이브 친구들, 이주여성극단 다락방, 대천마을학교 연극반, 동의 팝스 오케스트라, 살도텔꾼또, 시민극단 감동진, 우리는 음악입니다, 콩깍지연극단(실버벨노인복지관), 한 극예술연구회, 해운대 글로리아 어린이 합창단
N	프린지, 부대행사 등 (경연 외 프로그램)	게릴라 공연, 릴레이 노이즈(자유주제 토론), 부산연극사, 부산연극포럼, 네트워크데이	프린지, 부대행사 등 (경연 외 프로그램)	

위 표는 프로그램 별 자격 요건과 참가했던 극단(단체) 혹은 진행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최소 2팀, 최대 5팀만 공연을 하던 것에 비해 매우 많은 단체가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에는 전국연극제 참가 예정 극단의 초청공연을 제외하고 30팀(전문 극단 19팀으로 추정), 2024년에는 19팀(전문 극단 9팀)이 참가했다. 극단 세진, 우릿, 누리에, 동녘, 이야기, 잠방과 같이 오랫동안 부산에서 활동을 해오던 극단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극단인 극예술실험집단 초, 예술집단 백미, 데일리드라마 등은 부산연극의 젊은 신진예술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 특히 부산연극제에서 공연된 스테픈울

프의 창작 희곡 <몽심>이 부산연극제에서 실연된 이후 2024년 대학로에서 공연¹⁷되며 서울까지 진출하는 것은, 지역연극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듯 극단과 젊은 연극인들의 등장과 활동은 연극제의 다양화를 넘어 지역 연극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하겠다는 부산연극제의 목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준다.

다만 참여 극단의 자격을 완화하면서 공연의 질적 수준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¹⁸ 공연의 수가 많은 데 비해 한정된 축제 기간으로 인해 공연의 횟수가 적어 관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 또한 발생하기도 한다.¹⁹ 게다가 소극장 위주의 공연으로 인해 부산국제연극제의 문제로도 지적했듯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다가 찾기도 어려운 곳에 위치한 공연장으로 인해 연극제의 축제로서의 성격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동구, 남구와 동래구, 센텀시티로 분산되어 진행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축제의 흥분을 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²⁰ 부산연극제는 이를 보완하고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유튜브를 통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으나, 공연 전체를 유튜브로 즐기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사실 이를 통해 축제를 즐기는 느낌을 제공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있어서 참가팀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2023년, 2024년에 S와 A 프로그램이 모두 추가 공모를 진행했다는 사실은,²¹ 참여할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부족을 의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연극단, 다문화 여성 연극단의 참여는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연극제라는 축제를 통해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연극제가 그러하듯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것 역시 부산연극제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16 강인정(2024). 부산연극제 진행감독 소감: 개편된 부산 연극제, 그 과정 속에서. 부산연극, 33-34.

17 쌍둥이 자매의 잔혹한 이야기, 입체낭독극 '몽심' 대학로 공연. (2024년 9월 2일). K스피릿.

18 부산연극협회 협회장 및 사무처장 인터뷰, 날짜: 2024년 10월 10일, 시간: 오후 2시 30분~4시, 장소: 부산 예술회관 부산연극협회 사무실.

19 강인정(2024). 1.

20 박소영(2017). 서울과 부산의 연극문화지형도 연구: 연극공연축제와 문화인프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8-1. 64.

21 2023 제41회 부산연극제-섹션 All 공모 안내-공모기간 연장 공지. 부산연극협회 홈페이지. 2023.02.14. ; 2023 제41회 부산연극제-섹션 Social 공모-공모기간 연장 안내. 부산연극협회 홈페이지. 2023.03.14. ; 2024 제42회 부산연극제 섹션 SCENE 참가신청 공모-공모기간 연장 안내. 부산연극협회 홈페이지. 2024.03.13. ; 2024 제42회 부산연극제 섹션 ALL 참가신청 추가공모. 부산연극협회 홈페이지. 2024.03.18.

4. 결론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축제는 지역에 대해 문화도시라는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며 많은 문화예술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융성하기도 했고 혹은 사라지기도 했다. 문화예술축제에서 예술촌까지 지역은 언제나 예술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을 성장시키고자 했지만, 문화적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문제로 인해 예술제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중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극장과 극단을 가지고 있는 부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부산이지만, 연극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불모지에 가깝다. 소극장이 각 지역에 흩어져 어렵게 생존해야 하고 시민들은 연극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연극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거나, 지방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극단(극장)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부산의 연극제는 1963년 이래 꾸준히 만들어지고 사라졌다. 1963년 부산예술제를 시작으로 2023년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까지 지역의 극단들이 활동하고 부산시민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최근에 들어 아마추어극단의 연극제까지 만들어지며 부산의 연극제는 이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부산국제연극제는 점차 부산의 연극을 외면했고, 부산연극제는 대한민국연극제에 나갈 작품을 선정하는 예선대회로 전락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19였다고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도 연극제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했고 여전히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부산의 연극제마저도 생존을 논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산연극제는 예선 대회라는 오랜 존재 이유에서 벗어나 축제로 변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변화마저 실은 연극제의 생존과 지역연극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물론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역연극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References]

- Bae, Jun-Yong(2018). A Study on new types of dance festival through case analysis of performing arts festival.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Bak, So-young(2017). A Study on Cultural Topography of Seoul and Busan - With Festival of Artistic Performance And Culture Industry. Busan: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Do, Jung-Nim and Baek, Jin-Ki(2020). A Study on Po-hang Sea International Theater Festival Status and Development Plan. Seoul: Korea Society of Acting Studies.
- Jung, Ji-Eun(2016).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arts festival and improvement plan: Focused on the Geochang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and the Suwon Theatre Festival cases. Daegu: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 Kim Sung Hee(2004). A Study on History and Directions of Korea Theatre Festival. Seoul: The Korean Drama Society.
- Lee, Han seok(2011). Qualitative Study about Value and Strategy of Cultural Arts Festival -Focused on BIPAF. Gyeonggi: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 Park, Sang-soon(2016). Study of Performing Arts Festivals According to Their type. Seoul: Korea Association for Drama/Theatre and Education.
- Yun, Seong-Jin(2009). A Study on the Conditions and Improvemental Methods of Sub-Program in Performing Arts Festival.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생존방식으로서의 연극제: 부산의 연극제들을 중심으로

박소영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부산연극제를 통해 연극제가 지역예술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극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연극제가 개최되는 부산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지역의 공연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축제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많은 연극제들을 정리하고 비교하며 각각의 연극제가 가진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극제라 할 수 있는 부산연극제와 부산국제연극제를 비교하여 지역극단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동시에 2024년 시민 참여형 공연예술축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변화를 맞이한 부산연극제의 의미를 살펴본다.

결론 부산에도 많은 연극제가 있으나 여전히 연극예술이 생존하는 일은 어렵고 심지어 연극제마저 명맥을 이어가는 것마저 힘겨운 상황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부산국제연극제마저 지역극단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다른 국가의 극단과 서울 지역의 극단을 초청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때 대한민국연극제의 예선대회로 전략한 부산연극제의 과감한 변화는 연극제의 생존을 위한 변화이자 동시에 지역연극 활성화를 위한 변화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핵심어 부산연극제, 지역연극제, 예술축제, 지역축제, 지역연극,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연극

이 논문은 2025년 9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5년 9월 25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